



DIC, PPS樹脂 해외공장 건설로 경쟁력 강화

- DIC은 자동차와 전자기기 등의 부품에 사용하는 Poly Phenylene Sulfide(PPS) 수지의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음. 2020년 이후 수요를 고려한 차기투자계획에 대해 내년 2월경까지 의사결정을 할 방침임. 해외에 생산능력 연간 1만 4,000톤 규모의 신공장 건설을 위한 본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이 계획이 실현되면 DIC의 생산능력은 금년 말 鹿島(카시마)공장 증강 완료 시보다 약 60%가 증가하게 됨. 중국과 인도에서는 영업거점과 기술서비스 인력을 확충하고, 능력강화와 고객 개척으로 부품의 경량화 Needs를 포착하여 세계 시장점유율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PPS 수지는 내열성과 내약품성이 뛰어난 고기능 수지임. Glass섬유 등을 혼합한 Composit는 금속을 대체하는 경량화 소재로 자동차 엔지주변의 Sensor나 연료의 유량계 등 전자기기와 住設機器의 부품으로 채용이 확대되고 있음.

< DIC의 PPS수지 Compound 거점 >

거점	생산품목
鹿島工場(茨城縣)	PPS 수지
袖ヶ浦工場(袖ヶ浦市)	
小牧工場(愛知縣)	PPS Compound
말레이시아 공장(페낭)	
오스트리아 공장(비엔나)	
中國工場(張家港市)	

- DIC은 수지부터 Compound까지 일관 생산하고, Compound에서는 세계 시장점유율 약 27%로 수위를 점유하고 있음. Compound는 국내외에 4공장을 두고 연간능력은 약 4만톤 규모임. 수지는 일본 국내 2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음. 연말에는 약 44억엔을 투자한 鹿島工場の 증강이 완료되어 동 4,000톤 증가한 2만 3,000톤 규모로 확대됨.

- Compound는 Hybrid 자동차(HV)와 전기자동차(EV) 등 자동차용이 판매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객인 자동차부품메이커와 자사의 Compound 거점이 세계 각지에 소재하고 있음. 따라서 차기계획은 재해시를 대비한 사업계속계획(BCP) 등도 감안하여 해외가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음.
-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각 지역의 콤비나트를 대상으로 원료사정 등을 조사하는 사업화조사가 진행중에 있음. 생산능력은 투자효율 등을 감안하여 1만 4,000톤 정도를 상정하고, 건설공사를 2기로 나누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음. 내년 2월경까지 최종 의사를 결정한다는 방침임.
- PPS 수지의 저코스트 생산을 가능케 하는 제조 Process 기술개발에도 주력하고 있으며, 곧 테스트 플랜트에서 양산 검증을 개시할 방침임. 신기술을 확립하면 설비투자의 초기 비용과 유지비용을 각각 50% 정도 줄일 수 있어 2017년 중에는 기술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임.
- PPS Compound의 세계시장은 연평균 5% 정도 성장하여 15년의 세계 수요는 약 9만톤에 달한 것으로 추정됨. DIC는 신공장이 본격 가동한 중국에서 일본으로부터 파견한 기술서비스 담당자를 증원하였음. 인도에서는 델리와 뭍바이에 추가로 남부 Chennai에도 2016년 여름 영업거점을 개설하였음.
- 기술서비스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의 현지 채용도 검토하고 있음. 당분간은 중국 공장으로 생산설비 이관에 따른 小牧工場과 말레이시아 공장의 생산 여력을 전용함으로써 인도 등의 수요에 대응할 방침임. 최근 판매가 호조를 보이고 있는 유럽에서는 오스트리아 공장에 현재의 배 규모인 4계열까지 증설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향후 수요 동향을 보고 추가 투자를 판단할 계획임.
- DIC은 PPS Compound의 세계 시장점유율을 2018년 35%까지 확대를 목표로하고 있으며, 향후 시장을 주시한 성장 전략도 가속화하고 있음.

< 내열성을 살려 자동차 엔진주변의 Sensor 부품 등에 채용 확대 >

